일본 내에서 세번수 면사의 거래가 활발화

일본 내의 일부 방적에서는 면사 수입이 크게 줄면서 3월에 접어들자 면사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면사를 거래하는 상사의 재고가 적어지면서 단납기 주문이 많아져, 수급 관계가 일시적이나마 타이트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사에 의하면 50수, 60수, 80수 등의 면사가 약간 딸리고 있는 상황이다.

닛신보는 1~3월 상황에서 시판사, 자가 소비 모두 세번수사를 중심으로 시황이 좋았다고 한다. 텍스타일 판매에서는 셔츠, 유니폼이 호조였고, 자가 공장의 데님사 생산도 뒤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니카와 텍스타일, 닝보 유과면방적(寧波維科綿紡績) 등으로부터의 면사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1~3월은 전년 동기보다도 40ft 컨테이너로 8칸이 많아졌다.

그러나 채산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판사는 2005년 가을부터 세번수 수입사 값이 오르는 데 따라 판매 값을 올리고 있는데, 여전히 채산이 안맞는 상황이다. 실거래에 대하여도 일본 내 수요가 회복한 것이 아니라 면사 수입이 줄은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보 파이버”에서는 3월에 들어서면서 보일용 원사(voile yarn ; 꼬임이 좀 강한 50수 또는 100수 쌍사)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수입이 줄자 수급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수기가 임박한 주문에 맞춘 생산이나 보일사를 사용한 소재가 가을 상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면사 수입은 2005년 하반기부터 크게 줄고 있다. 2005년 7월에는 1981년 이래로 처음 2만곤대로 줄었고, 이때부터 5개월 동안 계속 2만 곤대가 계속

되었다.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에는 3만 곤으로 회복하였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1만 곤이 적은 수준이다. 2월에는 다시 2만 곤대로 떨어졌다.

상사에서는 해외 방적이 제시하는 면사 값이 강하며 엔의 외환 시세가 낮고 일본 내 수요가 주는 등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모두 말하고 있다. 2005년의 시황을 되돌아보면, 일본 내의 소재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어 일본 내 면사 시세는 내림세였었고, 해외 방적의 오퍼(offer) 가격은 일본 이외의 시장이 순조로워 오름세를 나타냈다. 더욱이 2005년 가을부터는 세번수용 원면 값이 오른 데 따라 해외 방적이 오퍼 가격이 올랐다.

외환 시세도 전년과 비교하여 엔의 시세가 떨어졌다. 구매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 내 면사는 비싼 시세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싼 수입사를 구입하면 채산이 맞는 값으로 팔 수 없다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